




국가청소년위원회
National Youth Commission

참여로 실현하는 인권 Up! Project

청소년 인권 워크숍



- | 일 시 2006년 9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 장 소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강당
- | 주 최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 | 후 원  국가청소년위원회
National Youth Commission

* 이 행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권리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참여로 실현하는 인권 Up! Project

청소년 인권 워크숍



||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강당

|| 주 최 |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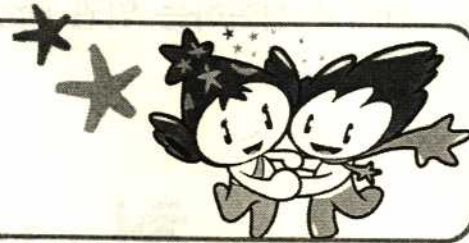
|| 후 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National Youth Commission

* 이 행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권리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인권 워크숍 교재순서

- 04 청소년 인권 워크숍 일정소개
- 05 청소년 인권 워크숍 소개
- 06 난장트리 프로그램
- 10 1강_ 인권과의 첫 만남
- 13 2강_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 17 만화로 보는 장애인의 삶
- 22 3강_ 인권지킴이와의 만남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누리'
- 24 만화로 보는 청소년 인권
- 25 학생인권법이란?
- 26 참여로 실현하는 청소년 인권 Up! Project'
전체 활동 소개
- 28 우리세상 소개

일정소개 청소년 인권 워크숍



청소년 인권 워크숍 소개

일시	진행내용	세부내용
10:00-10:40	■ 난장트리	• 공동체 놀이
10:40-11:30	1강 인권의 첫 만남	• 사물카드를 이용한 인권 알기 • 인권 마인드맵 그리기
	- 내가 생각하는 인권	
11:30-12:10	2강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 장애인이 말하는 인권	• 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 • 인권의 시각에서 본 장애인의 생활은..
	대구 DPI 간사 '서준호'	
12:10-12:50	점심식사	
12:50-13:40	■ 장애인 인권 광고 만들기	• 제작 및 발표
13:40-14:30	3강 인권지킴이와의 만남	• 나는 왜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	
14:20-15:10	■ 인권의 눈으로 본 나의 하루	• 나의 하루 인권 침해표 만들기
15:10-15:40	■ '인권' 도전! 골든벨	
15:40-16:00	■ 이후 활동 소개 및 활동정리하기	• 소감 작성

인권이란 어느 사회에서든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든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고 그에 따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성, 인종, 계층, 학력,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역사적 과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부단한 실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묶어내어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온 과정입니다. 장애인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여성문제, 성적 소수자,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두발자유와 차별 등 현재 환기되고 있는 인권문제들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형인 문제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도 그러하겠지만 인권 역시 잘 알아야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인권워크숍' 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워크숍' 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고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인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일곱 색이어서 아름답듯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공존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참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청소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인권워크숍' 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장트기 프로그램

10:00 ~ 10:20

전체 놀이

■ □ 비빔밥

- 전원이 동글게 둘러앉아 자기 자리에 청테잎으로 표시를 한다. (이꿈이는 자리가 없어야 한다)
 -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물어보고, 한 사람씩 그 재료를 지정해준다. 이 때 하나의 재료당 4~5명씩 지정될 수 있도록 재료 수를 정한다. 인원이 많을수록 재료 수를 적게 하여야 한다.
 - 먼저, 이꿈이가 원의 중앙에 서서 비빔밥 재료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외치면 그 재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하는데, 이때 이꿈이는 재빨리 빈 자리에 앉는다. (“비빔밥!” 이라고 외치면 모두가 움직여서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중앙에서 서서 비빔밥 재료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외치고,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된다.
- ※ 중앙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한다. 3초 안에 비빔밥 재료를 말하도록 주의를 준다.

■ □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술래를 제외한 전원이 동글게 둘러앉아 자기 자리에 청테잎으로 표시를 한다.
- 술래가 한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 “예” 라고 답하면, 그 사람의 양 옆의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이때 술래는 재빨리 빈 자리에 앉는다.
- “아니오” 라고 답하면, 다시 술래는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럼,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다시, 놀이에 참가한 전체 사람들 중에 하나의 특징을 찾아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한다. (예.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특징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야하는데, 이때 술래는 재빨리 빈 자리에 앉는다.
-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 □ 자리 채우기

- 전원이 동글게 둘러앉는다. 단, 술래가 되는 두 사람을 정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이 앉을 만큼의 자리를 띄운다.

- 전원이 다같이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노래가 시작되면 술래가 된 두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잡고 아무에게나 다가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띄워져 있던 자리(두 사람의 사이)에 앉힌다.
- 술래들이 데리고 간 사람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고, 그 빈 자리 양옆의 두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 같은 방식으로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 노래가 끝나는 순간, 둘 사이에 빈 자리가 있는 두 사람이 술래가 되어 벌칙을 받는다.

■ □ 인간 수건 돌리기

- 전체를 네 등분하여 십자 모양으로 줄을 지어 앉는다. (각 줄의 맨 앞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한다)
- 술래와 도망자를 정한다.
- 놀이가 시작되면 술래는 도망자를 잡으러 가는데, 도망자는 네 개의 줄 중 아무 줄이나 맨 앞 또는 맨 뒤에 앉을 수 있다.
- 만약, 도망자가 그 줄의 맨 앞에 앉으면 그 줄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도망을 가고 술래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
- 반대로, 도망자가 그 줄의 맨 뒤에 앉으면 그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도망을 가고 술래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
- 도망자가 자리에 앉기 전에 술래에게 잡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술래는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간다.

■ □ 알, 병아리, 닭

- 모두 앉아서 머리 위로 원을 그리고 “알알알알알” 다섯 번을 외치고 시작한다.
- 시작은 알부터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알인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병아리가 된다.
- 병아리가 되었을 때는 다리를 굽힌 채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을 외친 후 자신과 같은 병아리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으며 질 경우 다시 알이 된다.
- 병아리에서 이겼을 경우 닭이 되며 닭이 되었을 때는 서서 “꼬끼오 꼬끼오 꼬끼오 꼬끼오 꼬끼오” 를 외친 후 자신과 같은 닭과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으며 질 경우 다시 알이 된다.
- 닭인 상태에서 연달아 3번 이기면 봉황이 되어 날아갈 수 있다. 지면 다시 알이 된다.

■ □ 암살자 찾기

- 이꿈이는 전원이 눈을 감게 한 후 암살자를 정한다. 암살자는 돌아다니며 윙크를 하여 사람들을 죽인다.
- 윙크를 받은 사람은 다섯 발자국 움직인 뒤 그 자리에 쓰러진다. (죽은 사람은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암살자를 가르쳐주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된다.)
- 암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 라고 외친 후 그 사람을 지목한다.

- 만약 암살자가 아닌 사람을 신고한 것이면 신고한 사람이 죽는다.
- 모두를 죽이기 전에 암살자를 찾아내야 한다.

■ □ 인간폭탄

- 술래를 한 사람 뽑고 술래의 눈을 가린 후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잡고 술래를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선다.
- 주변 사람들은 발 구름이나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술래에게 가르쳐 주고, 술래는 그 소리를 따라 사람들을 잡아야한다.
- 술래에게 잡힌 사람은 다음 술래가 되어 진행한다. 또한 둥글게 잡은 손이 끊어지면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된다.
- 술래가 가는 방향으로 원이 함께 움직여야 잡히지도 않고, 잡은 손이 끊어지지도 않는다.
- ※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술래를 두 사람으로 한다.

■ □ 변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두 명씩 짝을 짓는다. 술래 짝을 정해 두 사람은 벽을 보고서고, 다른 사람들은 술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 술래는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후 뒤를 돌아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있다.
- 점점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술래 몰래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짝인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받고 다른 짝에게 전달을 하여야 한다.
-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한 후 돌아보고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짝을 맞추면 그 짝이 술래가 된다.
- 술래는 사람들이 술래가 있는 벽에 닿기 전에 물건을 갖고 있는 짝을 맞춰야 한다.
- 술래가 돌아볼 때 움직이다가 들켜도 술래가 된다.

10:20 ~ 10:40

모둠대항 놀이

■ □ 줄 세우기

- 모둠별로 일렬로 줄을 선다.
- 사회자가 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줄을 선다. (예. “키가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 기준으로 줄을 다 선 후, 모둠 이름을 크게 외치면 성공이다. (사회자는 제대로 섰는지 확인한다.)

- 처음에는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다가 뒤에 가서는 말을 하지 않고 기준으로 줄을 서게 한다.
- 가장 많이 성공한 모둠이 이긴다.

■ □ 풍선 터뜨리기

- 각자에게 풍선과 노끈을 각각 하나씩 나눠준다.
- 풍선을 크게 불어 각자 자신의 한쪽 발목에 노끈을 이용해 묶는다.
- 놀이가 시작되면, 자신의 풍선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린다. (단, 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끝까지 자신의 풍선을 지킨 사람의 수가 많은 편이 이긴다.

■ □ 평수 줄이기

- 모둠별로 큰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준다.
- 사회자가 지시하는 대로 종이 위에 모듬원 모두가 올라서면 되는데, 점점 종이를 접어서 종이 넓이가 줄어든다. (서로 안거나, 엮거나, 목마를 태우는 방식으로 지혜를 모아 모듬원 모두 종이위에 올라선다.)
- 계속해서 종이를 접어나가면서 진행하는데, 끝까지 남아 성공하는 모듬이 이긴다.

■ □ 단어 대기

- 모듬별로 일렬로 앉아 순서를 정한다.
- 사회자가 주제를 제시하면 해당되는 단어를 모듬원이 순서대로 끊이지 않고 모두 말하면 성공이다. (예. 사회자가 ‘산이름’ 을 제시했을 때, ‘팔공산’, ‘비슬산’, ‘지리산’ 식으로 모듬원 모두가 연속해서 답한다.)
- 모듬의 첫 번째 사람이 큰 소리로 모듬 이름을 외치면 단어를 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만약, 모듬원 중 한 사람이 단어를 대지 못하거나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또 대면 바로 다른 모듬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단, 다른 모듬에서 댄 단어는 다시 대도 된다.)
- 가장 많이 성공한 모듬이 이긴다.

■ □ 주사위 놀이

- 두 모듬으로 나눈다. 한 모듬은 홀수 모듬, 다른 한 모듬은 짝수 모듬이 된다.
- 이꿈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진 숫자에 해당하는 모듬은 빨리 자기편 벽으로 가서 붙고, 상대 모듬은 그 모듬이 벽에 붙기 전에 잡아야 한다.
- 잡힌 사람은 뒤쪽에 빠져나와서 자신의 모듬을 응원하게 한다.
- 남은 사람이 많은 모듬이 이긴다.

1강_ 인권과의 첫 만남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온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서,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즉,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직업, 수입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종교적 특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에야 한다. 또한 인권의 내용이 실제법으로서 정해지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소유하는 권리의 최고 가치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이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이 약자의 권리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 위에 확보해 낸 인간의 권리이다. 현재도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통을 받는 약자야말로 정말로 인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바로 약자들인 인권 피해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인권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인권은 _____ 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_____

인권은 _____ 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_____

<예시 1>

인권은 크레파스이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인권은 오독이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역경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인권을 지키므로
 인권은 색안경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아 주기를 원하므로

<쉬어가는 코너> 인권 지수 알아보기

※ 다음 중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O, 아닌 것에 X를 표시해 보세요.

- ① 여자와 남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
- ② 돈을 벌러 온 동남아인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
- ③ 누구든 내가 싫어하면 내 몸을 만질 수 없다. ()
- ④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로서 자식을 심하게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 ⑤ 부모님이 내 일기장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
- ⑥ 내일 있을 대회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내 집(아파트)에서 피아노를 연습해도 괜찮다. ()
- ⑦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도 부모님께서 가졌던 종교를 가져야 한다. ()
- ⑧ 학교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한 명일 경우에도, 장애인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한다. ()
- ⑨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이라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
- ⑩ 인사를 하지 않는 후배에게 동아리 선배들이 기합을 주어도 된다. ()

- 몇 개나 맞혔나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을 5줄 이상 적어 봅시다.

(1) 나의 인권 지수는 얼마나 될까?

- 여러분의 인권 의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의 문제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번호	문항	자주 있다	보통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4	6	8	10
2	나는 잘난 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잔받은 일이 있다	4	6	8	10
3	나는 다른 사람을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	4	6	8	10
4	나는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4	6	8	10
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4	6	8	10
6	나는 다른 사람을 따돌린 적이 있다	4	6	8	10
7	나는 다른 사람을 놀린 적이 있다	4	6	8	10
8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4	6	8	10
9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아무 말 없이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	4	6	8	10
10	나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본 적이 있다	4	6	8	10
11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갈취한 적이 있다	4	6	8	10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빈대를 붙은 적이 있다	4	6	8	10
13	나는 다른 사람이 잠자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다	4	6	8	10
14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앞에는 좋게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나쁘게 말하는 이중성을 보인 적이 있다	4	6	8	10
15	나는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4	6	8	10
소 계					
합 계					

(2) 짜잔! 나의 인권 지수는 몇 점?

점수	평가의 말	비고
150 ~ 140	감히 당신에게 '인권의 지존'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139 ~ 130	당신은 참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군요	
129 ~ 120	당신의 인권 존중의 마음과 행동을 조금만 더 높여 보세요	
119 ~ 110	당신의 인권 의식에 좀 마음을 쓰셔야겠군요	
100점 이하	허걱! 당신의 '인권'에 위기가 닥쳤군요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Human Rights)'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해서 인권의 역사가 쉽게 쓰여 졌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그저 먹고, 입고, 자면서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인간은 그 밖에도 '안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의 개념에는 이러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요소들이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령, 최첨단 전자 제품을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근대적인 세습 경영을 하고 않는든지, 일선 학교에서 지금은 일본에서도 없어진 식민 잔재인 애국 조화를 하고 있다든지, 전 세계적 탈냉전 분위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조국 독일의 1930년대 시대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의 처지가 이 말과 연상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1)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과 장애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12월31일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14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05년 9월 현재는 174만명에 달합니다.) 전체인구의 약3%가 장애인으로 11가구당 1가구꼴로 장애인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률은 미국 20.6%, 호주 18.0%, 독일 8.4%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강_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기

> 장애인이 말하는 인권
_대구 DPI 간사 서준호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는 400~450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등록 장애인의 수는 전체장애인의 69%인 100만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10명중 3명이 등록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장애등록을 하여도 별다른 혜택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이 89.4%나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은 85년 81.2%, 90년 85.2%, 95년 88.1%, 2000년 89.4%로 매년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이는 장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통계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발생원인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가정 내 사고(8.0%), 기타 사고(26.8%) 등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약70%는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 장애우???

'장애우' 라는 근본도 모르는 말까지 등장하여 장애인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87년 어느 장애인 단체가 당사자들의 견해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장애인을 친구로 생각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자는 취지였겠지요. 그 뒤, 유행에 민감한 언론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자칭 장애인 애호가들인 전문가들(사회복지사, 치료사, 의사 등), 종교인들, 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이 앞 다투어 '장애우'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 <숫대문학> 2005년 여름호를 보니까, 우리나라 44.1%가 '장애우' 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응답했더군요. 심지어 장애인 당사자들마저도 스스로를 '장애우' 로 부르는 사람이 있더군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근로자' 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던 것 처럼요. 이쯤 되면, 이제 '장애우' 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공식화된 용어인 듯합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들은 이 말을 참 듣는 게 몹시 거북스럽다고 말합니다. 장애 '우' 즉, 장애인을 '친구' 로 생각하자는 표현이 왜 나쁜가, 장애인들이 너무 속 좁은 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비장애인들이 더러 있을 성 싶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 말을 싫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애우' 에는 동정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터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친구로 보자는 것은 지나친 동정이랄 수 밖에 없겠지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나쁜 장애인조차 '친구니까' 봐주는 것 또한 차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 는 비장애인 중심적 표현입니다. 가령, 어느 장애인이 자신을 두고 '나는 장애우요' 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나는 장애인의 친구요' 가 되어 논리적 모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칭 개혁주의자라는 일부 비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장애우' 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치고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읽기자료> '장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까요?

■ 다음은 가수 강원래 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자신과는 거리가 먼 판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회 인식이 이런 수준이고 편의 시설도 지금처럼 엉망이면 장애인들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텔레비전에 휠체어 탄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여 주면서 사람들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우고 알아야지요.

난 장애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몰랐더니깐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장애우가 400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열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무얼 가르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안타깝죠. 장애인들을 만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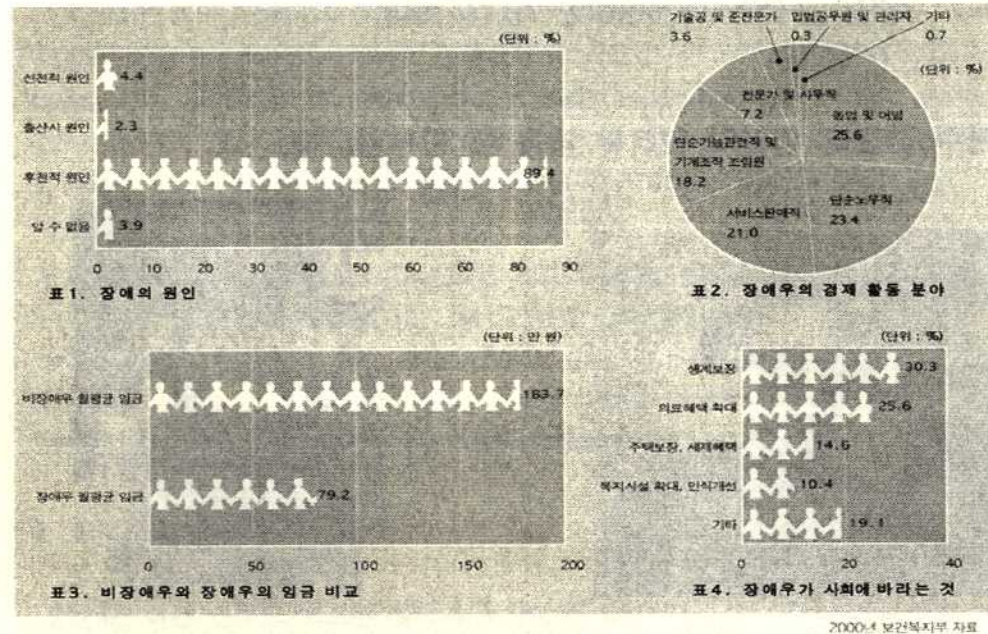
<함께 걸음> 2000년 6월호 강원래 씨와의 인터뷰에서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 ① 이 인터뷰 글에서는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했나요?
- ②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4000만으로 잡는다면 10명 중 몇 명이 장애인인 셈인가요?
- ③ ②번의 계산대로라면 우리 교실에는 몇 명의 장애인이 있어야 할까요?
- ④ 한 집에 4명의 가족이 있다고 칠 때 ②번의 계산대로라면 몇 집 걸러 한 명씩 장애인이 있는 셈인가요?

2. 강원래 씨는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뭐라 하고 있는지 찾아서 적어보세요.

■ 다음 표를 보고 생각 해 봅시다.



1.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정리하고 써 봅시다.

	장애인의 현실	표1을 나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표 1	장애의 원인은 거의가 ()인 것이며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그 분야가 (), ()로 소외되어 있다.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표 3	장애인의 임금은	
표 4	장애인들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과 ()을 꼽고 있다.	

2. '잠재적 장애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며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표1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3. 장애인이 소외 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차원과 사회(국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① 개인 차원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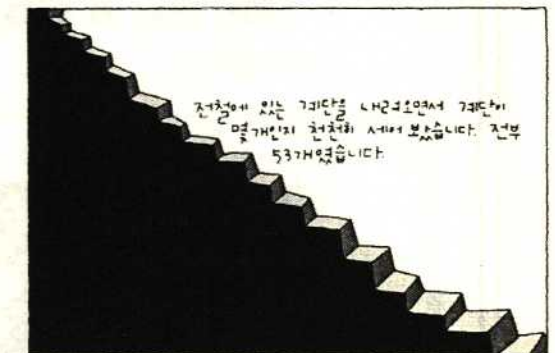
② 사회(국가) 차원에서 :

만화로 보는 장애인의 삶

떠나던 길



집과



작전번호 큰놈에게 큰놈은 작전번호에게 잘못 배운 사람이니까 작전번호입니다

■ 우리 사회 속에 있는 편견을 돌아보고 내 모습은 어떨지 돌아봅시다.

장차현실의 만화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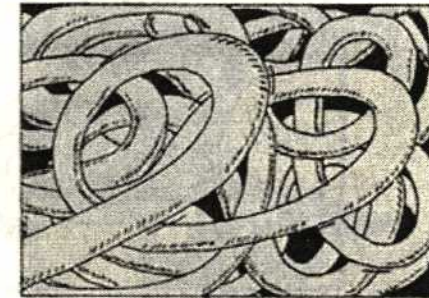
3



난 우리애가 장애인인지, 아님지 확실히 모른다. 어찌든 장애인 유형에 "정신지체 3급"으로 쓰여 있는 걸 보면 장애인 이면 맞은 것 같은데...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경계를 도무지 정하지 못하겠다



순직한 은혜야, 네가 있어 정말 고맙구나.

외출



3강_인권 지킴이와의 만남

> 청소년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 결성 취지

- 지난 2월 19일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 -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 활동가 상설 네트워크 결성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워크숍에서 네트워크 결성까지 결의되지는 못하였고, 3월 중으로 후속모임을 갖고 네트워크 결성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시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로서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기반의 부재) △빨빨이 운동(구심점의 부재) △정부 주도성(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미형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에 있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바람직한 관계맺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바로 앞에서 지적된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자료/현안/활동/고민 등) 강화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청소년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 등을 일구어 내기 위한 첫 출발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써 초기 걸음마단계에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네트워크가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2. 네트워크 주요 활동

1) 공동 사업

① 기획사업

-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정세를 고려하면서 네트워크가 힘을 모을 1-2가지 공동사업을 정하고 굵직한 운동 흐름을 형성해나갈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두발자유 바로 지금'》 《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저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위 참여》 《두발자전거 school attack!!》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전국 교육청 앞 릴레이 1인시위》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school attack 2탄, 찾아가는 청소년인권사진전》

2) 교육

- 청소년인권운동에 입문하고자 하는 신입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캠프가 필요하여 지난 7월 말 《파란만장 청소년인권캠프》를 열었습니다.

3) 공동 연구 작업

- 이론화의 첫 과제로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는 지금껏 제대로 정리되지도 공유되지도 못해왔습니다. 역사는 오늘 운동의 거름이자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기도 하기에 그동안 전개돼 왔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공동으로 기획,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 인권운동의 미래를 다시 여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만화로 보는 청소년 인권



안공 조삼모사

머리 깎아와 내가 분명히 말했어
뿔머리 얹머리 기계대와 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도 사랑이다!

앙드레 학주가 그려준 내머리위의 고속도로

시술사: 앙드레 학주
시술비: 무료
시술전: 앙드레 껌
시술도구: only 머리깎기
시술후: 앙드레 껌
주의사항: 시술후 삭발시 방향으로 간주.

농림부 갔다가 3mm로 반삭하던가

학교 다닐 동안 머리는 단정해야죠

앙드레 학주

Full O

< 학생인권법 > 이란?



학생인권법 이어서 다르다

두발규제 금지 (제 18조 3항 신설)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학생회 법제화 (제 17조 개정)

학생생활규정, 학칙 제정 보장,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반영,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견 보장

체벌 금지 (제 18조 3항 신설)

신체적 가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차별 금지 (제 18조 3항 신설)

학생 두발, 복장, 개인소지품, 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체형에 따른 차별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0교시, 강제자율보충 금지 (제 18조 3항 신설)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통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제 18조 4항 신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 구축, 3년 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참여로 실현하는 인권 Up! Project〉 전체 활동 소개

○ 프로젝트의 목적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내실화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한다.

○ 단계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등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청소년 인권문제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 사업취지

사회가 급격히 개방화, 정보화 되면서 많은 영역이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곳 중 하나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상과제인 우리 사회에서 입시 외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권 문제는 청소년담론에서 변두리를 차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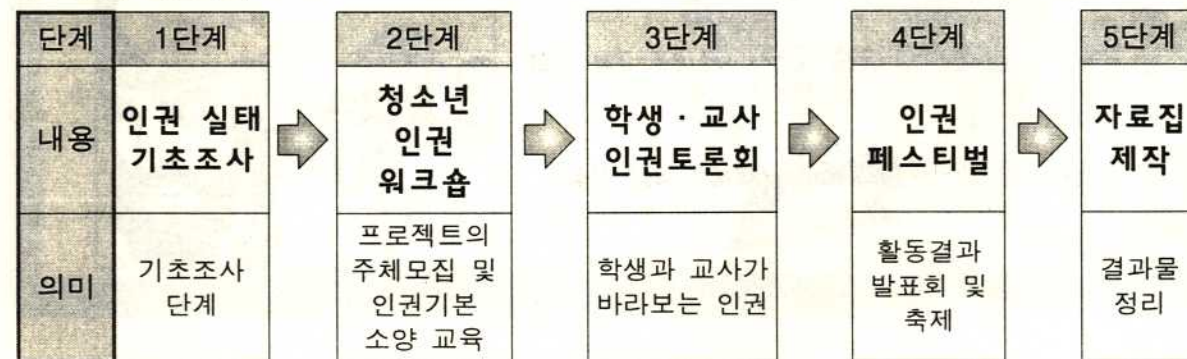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청소년정책에도 큰 전환이 있었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바뀌어 두발규제, 차별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으로 육성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권리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청소년들이 소수이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입시에 눌러 청소년들 스스로 '두발규제, 차별' 과 같은 족쇄를 자율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에 있어 이중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높이지 않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고, 권리증진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참여로 실현하는 청소년 인권 UP! Project' 는 청소년의 인권의식 신장을 주된 과제로 삼아 의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에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전제로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진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청소년인권 증진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프로젝트 사업개요

1. 개괄적 사업계획



2. 이후 사업계획

3단계

학생·교사 인권토론회

1) 취지

- 권위주의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자신도 잘 모르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경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다루게 되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다. 이에 그러한 의미의 교육으로서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과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교사 인권토론회' 를 개최하고자 한다.

- '학생·교사 인권토론회' 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한다. 교사들의 경우 청소년의 요구를 잘 이해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청소년의 경우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며 권리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자세를 함양한다.

2) 사업개요

- ① 일시 : 10월 21일(토)
- ② 주제 : 차별, 두발자유!
- ③ 발언
 - 기초발제 2인
 - 청소년, 교사 상호 토론

4단계

인권페스티벌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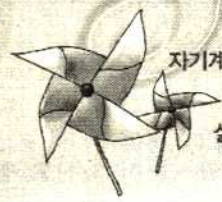
- 청소년 인권 워크숍, 청소년 인권 토론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쌓인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고민과 실천을 종합하여 활동을 마무리짓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
-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 요청되는 사회적인 노력을 축제화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한다.

2) 사업개요

- ① 일시 : 11월 4일(토) 3시~6시
- ② 장소 :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③ 사업개요

분야	내용
전시	배경걸개그림, 인권수업 결과 전시물, 청소년 인권 그림전
체험	청소년 인권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체험부스 운영.
공연	청소년 창작댄스, 수화, 랩, 노가바, 퍼포먼스, 노래가 있는 인권 콘서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은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한 다채롭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합니다.

■ 청소년 문화기획사업

- 대구 청소년 문화한마당, 주말 상설 문화마당, 2006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문화봉사대



■ 청소년 동아리연합 사업

- 수화, 만화, 연극, 영화, 천문, 컴퓨터 동아리 연합
- 독서토론동아리 '떼떼', 봉사 동아리, 풍물 동아리, 역사문화탐방 동아리



■ 청소년 교육사업

- 중학생 리더십 캠프, 민주적 리더십 형성을 위한 청소년 워크숍, 재미있는 교양강좌, 청소년 통일한마당, 5.18민중항쟁 역사기행



■ 중·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 특별활동 수업지도, 학급활동 지원, 학급 소풍 지도, 야영, 캠프 지도, 학생회 지원
- 2006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 전화 | 053) 425-8420
| 팩스 | 053) 427-3616

www.uril318.org

1388
청소년전화